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과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역할\*

차 경 미  
(부산외국어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그동안 라틴아메리카의 공식역사 속에서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실현에 기여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침묵되어온 경향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예제와 식민체제에 저항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집단적 저항이 독립과 새로운 국가건설의 밑거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로는 백인 크리올(Criollo) 중심의 역사체계 속에 공식적인 흔적을 남기기 어려웠다. 17세기 아시엔다(Hacienda)의 발전과 함께 특히 브라질과 남미독립운동의 중심지인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el Virreinato de la Nueva Granada)<sup>1)</sup>을 중심으로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1)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Virreinato del Nuevo Reino de Granada)령은 1717년 스페인 왕실이 식민영토를 효과적으로 관할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체계의 일부로서 현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그리고 페루 일부지역의 영토가 포함된다. 수도는 산타 페(Santa Fe)로서 현재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Bogotá)에 해당하며, 콜롬비아는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의 행정적 중심지였다.

흑인노예들의 집단적 저항이 전개되었다. 노예제에 저항하며 도주한 흑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치, 사회활동을 통해 조직적인 반-식민 활동을 전개했다.

브라질의 강가 쉼바(Ganga Zumba)의 지도아래 알라고아스(Alagoas)지역에 형성되었던 공동체 킬롬보 도스 팰마레스(Quilombo dos Palmares)는 6천 명이 동원된 포르투갈 군과 2년간의 전투 끝에 결국 해산되었으나, 식민체제에 대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조직적인 저항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역사였다. 누에바 그라나다 부황령의 페투와 베네수엘라, 파나마에서도 노예제에 저항하여 도주한 흑인노예들은 공동체를 건설하여 식민체제에 대한 집단적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18세기 이러한 공동체는 식민당국에 의해 대부분 해산되거나 파괴되었으며,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는 파편화되어 생명력을 상실해 갔다. 이와는 달리 콜롬비아의 경우 17세기 초 형성된 흑인노예들의 저항의 공동체가 아직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은 18세기 말 꼬무네로스(Comuneros)혁명과 콜롬비아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다.<sup>2)</sup>

콜롬비아의 독립운동은 식민체제에 대한 흑인노예들의 저항과 이들의 정신을 계승한 꼬무네로스 혁명을 토대로 전개되었다. 꼬무네로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웠고, 혁명적 공화주의와 계몽사상을 토대로 한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는 독립을 통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이들에게 독립은 노예제폐지와 인종적 편견에 대한 종말을 의미했다. 누에바 그라나다의 독립운동은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공헌 없이는 시작 될 수 없는 역사였다. 비록 이들이 끄리오요 백인의 지휘아래 독립전쟁에 동원되었지만, 콜롬비아의 독립과 새로

2) 꼬무네로스(Comuneros)는 1520과 1521년까지 스페인의 가스티야(Castilla)에서 발생한 반란에 참여한 시민을 일컫는 말이다. 꼬무네로스라는 명칭은 공동체 "꼬무니달(Comunidad)"에서 파생되었다. 가스티야에서 왕실의 과도한 세금징수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시민 반란이 발생했을 때 꼬무네로스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6세기부터 꼬무네로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다양한 시민활동이 전개되었다. 1780년에 누에바 그라나다에서 발생한 꼬무네로스 혁명은 "엘 꼬문(EI Comun)"으로 불리던 반란위원회의 명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http://es.wikipedia.org/wiki/ Comunero](http://es.wikipedia.org/wiki/Comunero).



식민정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1441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흑인노예들이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되었다. 오늘날 모잠비크, 앙고라, 세네갈, 나이지리아로 부터 강제로 이주한 아프리카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지역에 정착했다.

콜롬비아의 식민해상무역의 중심지인 까르타헤나(Cartagena)에 도착한 아프리카인들은 산타 웨(Santa Fe), 안띠오끼아(Antioquia), 깔리(Cali), 뽀빠얀(Popayán), 초코(Chocó), 막델라나 강(Rio de Magdalena)유역과 카우카(Cauca)와 같은 식민경제 중심지에 노동력을 제공했다.<sup>3)</sup>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었다. 노예로 매매된 흑인과 자유민으로서의 흑인이 존재했다. 노예화된 흑인은 상품으로 취급되었으며, 노예소유 규모는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자유민으로서 흑인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매매했거나 혹은 주인에 의해 자유가 주어졌다. 이들은 농장에서 수확한 식량의 일정량을 차지할 수 있었고, 할당된 몫의 일부분은 축적할 수도 있었다. 또한 축적된 재원으로 부인과 자녀의 자유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노예제에 저항한 시마론과 이들을 추적하는 노예사냥꾼으로서의 흑인이 존재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도주한 흑인노예를 “산으로 도망간 황소”라는 의미를 지닌 시마론 이라고 불렀다.<sup>4)</sup> 시마론은 근접이 어려운 산악지대에 공동체를 형성하여 식민체제에 저항했다. 시마론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를 빨레게(Palenque)라고 부른다. 시마론은 빨레게를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식민권력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하여 조직적인 반-식민 활동을 주도해 나아갔다. 그리고 다른 노예들의 도주를 지원하며 노예제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시마론의 도주는 주인의 학대를 피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다. 도주는

3) ACIA, *Boletín de la Asociación Campesina Intrgral de Atrato*, No.25,(Bogotá: Abril-Mayo de 1994), p.5

4) 시마론(Cimarrón)은 안띠야스(Antillas)제도의 “날아간 화살” 혹은 “산으로 도망간 황소”란 뜻을 가진 원주민어로부터 파생되었다. 카리브 해 프랑스 령에서는 마룬(Maroon) 혹은 시마론(Cimarron) 으로 불렀다. 시마론과 빨레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경미, 「카리브해 빨레게데 산바실리오(Palénque de San Basilio) 흑인공동체: 저항으로서의 역사, 기억으로서의 문화」, 『라틴아메리카연구』 21권 2호 참조.

노예들의 식민권력에 대한 정당방위였으며, 또한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의 기초였다. 시마론의 수가 증가하자 식민정부는 이들에 대한 수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노예사냥꾼을 조직하여 시마론과 빨랑게를 해체해 나아갔다. 따라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식민체제 하에 독자적인 사회를 구축하여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한 시마론의 활동은 라틴아메리카 식민사에서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1600년 비오호(Benkos Biohó)의 지휘아래 카리브 해 연안도시 가르따헤나를 시작으로 전개된 시마론의 저항은 사탕수수농장과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619년 가르따헤나 지역 시마론은 자유를 선언하고 토지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17세기 아시엔다의 발전과 함께 빨랑게 형성은 확산되었다. 1633년 마리아 산맥(Sierras de María)부근에는 시마론 레오노르(la Negra Leonor)가 건설한 빨랑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694년 크리오요(Domingo Criollo)와 미나(Pedro Mina)의 주도아래를 빨랑게가 건설되었다. 1684년 콜로소 산악지역(Montañas de Coloso)과 띠티부(Tibú)의 빨랑게는 크리오요(Domingo Criollo)에 의해 등장했다. 1693년 루루아코 산맥(Sierras de Luruaco)지역은 빠디아(Domingo Padilla)와 아라라(Francisco Arará)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반-식민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1694년 산 루카스산맥(Serranía de San Lucas) 부근에는 시마론 지도자 부룬(Juan Brun)과 노로시(Cunaba Norosí)가 빨랑게를 건설했다. 1706년 안티오키아지역에서는 마리니아(Marinilla), 리오네그로(Rionegro)그리고 히라도라(Giradora) 빨랑게가 형성되었다. 1728년 태평양 연안의 중심지인 초코(Chocó)에서 따도(Tadó)빨랑게가 등장했다.

1731년 쿤디나마르까(Cundinamarca)지역에서는 과야발(Guayabal), 시끼마(Síquima) 빨랑게 그리고 1758년 토까이마(Tocaima) 빨랑게가 건설되어 빨랑게 형성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후 1772년 빠블로(Pablo)에 의해 유루망끼강(Río Yurumanguí)부근과 칼리(Cali)에도 빨랑게가 형성되었다. 1785년 엘 네그로 뿌루덴시오(el Negro Prudencio)의 가르따고(Cartago)와 세리토스(Cerritos) 빨랑게 그리고 1891년 바제(Valle)의 사이하강(Río Saija) 부근 빨랑게를 마지막으로 식민통치와 함께 시작된 시마론의 반-식민활동은

전개되었다.<sup>5)</sup> 17세기부터 형성되어 확산된 빨레게는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확립과 식민체제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빨레게는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정치와 사회 활동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혁명 및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시마론은 빨레게를 통해 아프리카의 전통과 이산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사회조직과 문화를 재창조하여 백인 식민권력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집단적 저항을 전개했다. 따라서 시마론과 빨레게는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급진주의 저항운동전통의 토대가 되었다. 17세기말 빨레게는 2배로 증가했고 18세기 전 기간 동안 시마론의 저항은 콜롬비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자메이카 그리고 수리남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스페인 식민정부는 시마론 공동체의 영토와 자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빨레게는 식민체제 하에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저항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위대한 유산이었다. 비오호, 끄리오 요 그리고 부룬과 같은 시마론 지도자들은 자유와 평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반-식민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의 활동은 콜롬비아 독립운동의 발판이 되었으며 이후 1781년 평등하고 정의로운 통합적인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 꼬무네로스 혁명의 실천적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 2. 꼬무네로스 혁명

콜롬비아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꼬무네로스의 반란이 스페인 식민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경제부문의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의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꼬무네로스의 반란을 반-식민독립운동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위로부터 대신당한 아래로부터의 사회혁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6)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꼬무네로스 혁명은 근본적으로 식민모국의

---

5) "Cimarron y Palenques", *El Rincón del Vago*,  
([http://html.rincondelvago.com/historia\\_-\\_de-colombia\\_1.html](http://html.rincondelvago.com/historia_-_de-colombia_1.html))

6) John Leddy Phelan, *El Pueblo y el Rey: la Revolución Comunera en Colombia*

중앙집권세력과 식민지의 탈 중앙집권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의 표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꼬무네로스 혁명은 1781년 3월 16일 누에바 그라나다 부황령 소꼬로(Socorro)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당시 최근에 자유무역이 추진되었고, 섬유산업이 가장 번창하던 곳이다. 스페인 왕 까를로스 3세(Carlos III)는 카리브해 연안 라 플로리다(La Florida)와 히브랄타르(Gibraltar)에 대한 영토회복을 시도하면서 영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부족한 전쟁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1779년 세금징수관리원 삐네라(Gutiérrez de Piñeres)를 식민지 누에바 그라나다의 수도 산타페(Santafé de Bogotá)로 파견했다. 삐네라는 왕실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으나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물은 아니었다. 누에바 그라나다에 대한 스페인왕실의 섭정은 삐네라를 통해 실현되었다.<sup>7)</sup>

당시 누에바 그라나다의 부왕 플로레(Manuel Antonio Flore)는 전쟁준비를 위해 수도의 행정을 삐네라에게 위임하고, 가르따헤나로 이동하여 카리브해 도시방어체계를 정비했다. 부왕의 부재를 계기로 삐네라는 식민지 세력이 독점하고 있던 소금과 담배에 대한 독과점 세를 부과하고, 판매세의 4-6%를 인상했다. 그리고 면직물에 대한 과세를 징수했다. 새로운 조세 프로그램을 통한 스페인 왕실의 식민경제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식민지세력의 불만을 야기했다.<sup>8)</sup>

1781년 식민지에서는 스페인 왕실의 과도한 세금징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반란이 등장했다. 특히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활된 담배판매세에 대한 인상은 산판데르주(Santander)에 위치한 과네타(Guanentá) 지역민에게는 예민한 사안이었다. 이 지역 주민은 1752년과 1764-1767년 주류 아구아르디엔페(Aguardiente)에 대한 식민정부의 독점을 비난하며 이미 폭동을 주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담배 판매세 인상은 이전과 달리 조직화된 새로운 저항활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1780년 정부가 산판데르주

1781, (Bogotá: Carlos Valencia editor, 1981), p.13.; Antonio García, *Los Comuneros en la Pre-Revolución de Independencia, Ensayos Históricos*, (Bogotá:Plaza y Janes,1981), p.11.

7) Memoria y Sociedad 15, No.30(Bogotá:2011) pp. 71 – 84.

8) Lynch, *The Spanish American Revolutions*. pág. 231.

의 시마꼬파(Simacota), 모고떼스(Mogotes)와 차를라(Charalá)지역에서 담배 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결국 1781년 4월 16일 소꼬로를 중심으로 시민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sup>9)</sup>

반란 지도자 벨뜨란(Manuela Beltrán)은 담배 판매세 징수를 거부하며 정부 건물을 파괴했다. 3월 23일 산 힐(San Gil)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시마꼬파에서 몰라또 알칸투스(Lorenzo Alcantuz)는 시위를 주도하며 반-식민운동을 전개했다. 식민정부에 대한 저항은 인근 뽀초떼(Pinchote)와 과달루페(Guadalupe)지역으로 확대되었다. 4월 15일 산판테르주 시위대는 소꼬로에 집결하여 식민정부에 대한 무력투쟁을 선언했다. 이후 시민저항은 누에바 그라나다의 중심지 산따 웨, 톨리마(Tolima), 안띠오끼아, 산따마르타(Santa Marta), 베네수엘라(Venezuela), 동부평원(los Llanos Orientales) 그리고 까우카 지역까지 확산되었다.<sup>10)</sup> 빠스또(Pasto)와 네이바(Neiva)지역에서는 분노한 군중이 식민통치자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란은 상인, 도축업자, 소농, 빈농 등 백인 엘리트가 아닌 일반 시민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은 원주민과의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꼬무네로스의 반란은 고대 칩차(Chipcha)문명의 중심지인 툽하(Tunja), 안띠오끼아, 네이바(Neiva), 팜플로나(Pamplona)와 까사나레(Casanare)주로 확장되었다. 페루 뚜팍 아마루(Túpac Amaru)의 저항정신에 영향을 받은 원주민들은 꼬무네로스 반란을 지원했다. 1781년 6월 뽀빠얀(Popayán)의 통치자 빠레도(José Ignacio Paredo)는 수도 빠스또(Pasto)에서 발생한 반란에 의해 사망했다. 소꼬로 사건을 계기로 안데스산맥지역과 가르네(Guarne), 투마코(Tumaco)와 메리다(Mérida)지역에서 꼬무네로스 반란은 지속되었다. 리오네그로의 산 니콜라스(San Nicolás de Ríonegro)에서도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었다. 누에바 그라나다지역을 포함한 남미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9) Mario, Aguila Peña, *Los Comuneros Guerra Social Y Lucha Anticolonial*, (Bogotá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1985)p.13.

10) Silva, Vincente Pérez, "Revolución de los Comuneros: Revelaciones Documentales y Otras Incidencias", *Revista de Credencial Historia, edición* 240, (Bogotá, 2009)

<http://www.banrepcultural.org/blaavirtual/revistas/credencial/diciembre2009/comuneros.htm>.

유사한 형태의 시민반란이 전개되었다.

소꼬로 광장에 모인 6,000명의 시위대는 정부창고를 공격하고 식민 통치자를 추방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 베르베오(Juan Francisco Berbeo)를 추대했다. 그와 함께 시위 주도인물인 빨라따(Salvador Plata), 몬살베(Antonio Monsalve)와 로시오(Francisco Rosillo)도 주요 공직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엘 꼬문(El Común)”으로 불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을 정비했다. 꼬무네로스는 수도로 향하던 중 다른 지역으로부터 상경하던 반란군과 합류했다.<sup>11)</sup>

오소리오(José Osorio)와 바레라(Joaquín de la Barrera) 중심의 2만여 명으로 구성된 꼬무네로스는 담배독점 폐지, 과도한 세금부과정책 철회 그리고 식민모국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과세체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수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소도시 씨빠끼라(Zipacquirá)에 도착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빠네라는 까르따헤나로 도주했다. 그리고 법원 상무위원회, 레알 아우덴시아(Real Audiencia) 소속 위원과 국고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대표자를 소집하여 꼬무네로스와의 협상을 시도했다. 정부 대표로 주교 공고라(Antonio Caballero y Góngora)가 협상을 주도했다. 꼬무네로스는 협상조건으로 까삐톨라시온 베르베오(Berbeo de las Capitulaciones)로 불리는 35개 조항의 개혁안을 제출했다.<sup>12)</sup> 이 개혁안은 이후 까삐톨라시온 데 씨빠끼라(Las Capitulaciones de Zipacquirá)로 불렸다. 까삐톨라시온의 주요 골자는 식민지 이해에 반하는 과세폐지 및 축소 그리고 담배세와 주류세 인하였다. 이와 함께 원주민에게 일부 보호지와 소금광산의 반환, 공물축소와 십일조제 폐지, 반도인 독점의 공직 개방 및 해방된 흑인노예들의 공물폐지 등이 주요 협상안으로 제출되었다.<sup>13)</sup>

11) Arciniegas, Germán, *Los comuneros*, (Bogotá: Editorial Pluma, 1980), pp.212-213.

12) Pablo Cárdenas Acosta, *El Movimiento Comunal, Tomo.II*, Edición Conmemorativa del Sesquicentenario de la Independencia Nacional, (Bogotá: MCMLX, 1948), pp. 18-29.

13) Academia Colombiana de Historia. “El Bicentenario de las Capitulaciones”, *Boletín de Historia y Antigüedades*, 68, no. 733, (1981): 533-536.

1781년 5월 중반 콩고라 주교는 꼬무네로스가 제출한 까삐톨라시온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반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격양된 꼬무네로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식민정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위원회는 꼬무네로스가 제출한 35개 요구 항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우덴시아는 꼬무네로스의 까삐톨라시온을 승인했다. 콩고라 주교는 꼬무네로스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바르가스(Vasco y Vargas)를 판사로 그리고 갈라비스(Eustaquio Galavis)를 시장으로 임명했다. 식민정부는 까삐톨라시온을 통해 꼬무네로스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그리고 끄리오요의 공직 진출도 허용되었다. 또한 꼬무네로스는 반란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사면 처리되었다.

카르타헤나에서 이 소식을 접한 부왕 플로레스는 7월6일 500명의 군인을 소꼬로에 파견했다. 베르넷(José Bernet)의 지휘아래 뿌엔테 레알(Puente Real)에 도착한 정부군은 꼬무네로스를 향해 공격했다. 왕실은 플로레스를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부황으로 승진 발령했다. 그리고 1782년 7월 후임으로 콩고라 주교를 누에바 그라나다의 신임 부황으로 임명했다. 반란을 주도했던 베르베오는 식민당국의 까삐톨라시온 승인 소식을 접하고, 떠났다. 그러나 몰라도 갈란(José Antonio Galán)은 정부의 합의 이행에 대한 사후 처리를 주시하며, 투쟁을 지속했다.<sup>14)</sup> 식민정부는 갈란의 예상대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꼬무네로스가 제시한 까삐톨라시온에 대한 승인을 전면 무효화 했다. 그리고 갈란 및 반란주도 인물들에 대한 체포 명령과 함께 1782년 2월 혁명세력을 처형했다.

결과적으로 꼬무네로스 혁명은 스페인 식민정부의 약화와 18세기말 누에바 그라나다 사회의 모순을 표면적으로 노출한 사건이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꼬무네로스 혁명은 실패가 아니었다. 식민정부는 스페인 왕실이 제시한 식민지 과세부와 원칙을 수정해야만 했다. 또한 식민정부는 체제전복의 위기를 예고했던 모순의 표출을 통해 경제운영에 있어서 합의와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꼬무네로스 혁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면에도 커다란 변혁

14) John Leddy Phelan, *El Pueblo y el Rey*, (Bogotá: Universidad Rosario, 2009), p.193.

이었다. 꼬무네로스가 정부와의 협상조건으로 제시한 까삐톨라시온은 반-식민 세력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작성된 공식문서였다. 까삐톨라시온은 식민체 제 청산에 대한 식민지 세력의 강한 의지의 산물로서<sup>15)</sup> 원주민의 토지반환문제 그리고 갈란이 선언한 흑인 노예해방은 분명 사회혁명이었다. 비록 정부가 까삐톨라시온을 전면 무효화 했지만, 프랑스혁명이 발생하기 오래 전 이미 라틴아메리카에서 구체제 사회와 정치 그리고 경제 청산을 시도한 시민혁명은 전개되었다. 이러한 혁명은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국가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 Ⅲ . 독립과정에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의 역할

콜롬비아의 독립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은 온전히 백인 끄리오요의 공로만은 아니었다. 17세기 전 기간 동안 독자적인 체제와 문화를 유지하며 식민노예제에 저항한 시마론과 18세기 정치, 사회 변혁을 추구하며 헌신한 흑인 꼬무네로스 지도자의 희생은 콜롬비아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식민시대 누에바 그라나다 부황령의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카르타헤나에서 1821년 전개된 독립선언과정에서 시마론 지도자들과 이들의 저항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계급의 평등을 주장한 갈란 같은 몰라또 지도자의 역할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시엔다의 발전과 함께 증가한 시마론은 공동체 뺨쟁계를 형성하여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흑인노예들의 자유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1603년 까르따헤나를 시작으로 1891년 바제(Valle)의 사이하강(Rio Saija)부근에 시마론 공동체가 건설될 때까지,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공동체의 식민체제에 대한 저항은 지속되었다. 시마론은 독립사상의 기반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웠고, 구체제 청산을 시도한 꼬무네로스 혁명의 실천적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

꼬무네로스 혁명을 주도한 갈란은 산탄데르 차랄라 출신 몰라또다. 그는 식민정부에 의해 징집되어 병역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출신지인 소꼬로에서

15) Mario Aguilera Peña, op.,cit, p.64

발생한 혁명소식을 접하고 탈영하여 혁명지도자 베르베오 휘하로 들어가 혁명군을 지휘했다. 베르베오의 명령으로 까르따헤나로 도주하던 왕실파견관리 빠네라를 추적하여 체포했다. 식민당국에 의해 꼬무네로스가 제시한 까삐틀라시온이 인정되자 그는 빠네라를 석방했다.

이후 산타 퀘 부근 톨리마(Tolima)주 마르끼따(Mariquita)에 위치한 말빠소(Malpasos)광산에 도착하여 흑인노예들의 자유를 선언했다. 그리고 갈란은 암발레마(Ambalema), 또카이마(Tocaima), 꼬에요(Coello), 꼬야이마(Coyaima), 나따가이마(Natagaima), 뿌리휘칸시온(Purificación), 네이바(Neiva)와 이바게(Ibague) 같은 지역의 흑인노예들의 저항을 주도했다. 아시엔다를 점령하고 식민경제의 중심지인 까우까(Cauca), 막달레나(Magdalena) 그리고 안띠오끼아(Antioquia)지역을 중심으로 식민노예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계기로 안띠오끼아지역 부에나비스따(Buenavista)광산을 운영하던 식민지배자 아구델로(Lorenzo Agudelo)는 자신의 노예 80명을 해방했다.<sup>16)</sup>

1781년 11월 7일 흑인노예 크루스(Vicente de la Cruz)는 뚜마꼬에 위치한 아시엔다 라 니냐(La Niña)에서 반란을 주도하며 노예들을 해방했다. 또한 뚜께레스(Túquerres)와 바르바코스(Barbacoas)지역에서 해방된 흑인노예 끼뇨네스(Eusebio Quiñones)는 나리뇨(Nariño)남쪽지역의 꼬무네로스 혁명을 지휘했다. 이들은 대중에게 노예제 억압을 알리는 일종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꼬무네로스는 까삐틀라시온의 무효화를 선언한 식민정부에 맞서 안띠야스 메노레스(Antillas Menores)로 도주한 지도자 베르베오를 뒤로하고 갈란의 지휘아래 새로운 저항활동을 전개했다. 혁명에 참여한 시마론과 몰라또 지도자들은 상호 단결과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한편, 노예해방과 법적평등 문제를 공적인 논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782년 갈란은 정부군에 의해 체포되어 그의 동료 몰리나(Isidro Molina), 알칸투스 그리고 오르띠스(Manuel Ortiz)와 함께 처형되었다. 갈란

16) Antonio Vélez Ocampo, *Revolución de los Comuneros*, (Bogotá: Biblioteca Virtual: Luis Angel Arango, 2007, enero).

<http://www.banrepcultural.org/blaavirtual/modosycostumbres/crucahis/crucahis106.htm>

의 잘린 머리는 최근 반란이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던 과두아스(Guaduas) 마을 입구에 전시되었다. 또한 그의 오른손은 소꼬로 광장에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고향 차를라에 버려졌다. 그의 동료들의 시신도 반란을 주도했던 지역으로 흩어져 버려졌다.<sup>17)</sup> 빠라다(Ignacio Parada), 바르가스(Miguel Fulgencio de Vargas), 발란디아(Jose Velandia), 빼드라사(Guillermo Pedraza)와 레예스(Baltasar de los Reyes)의 시신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갈란과 희생된 꼬무네로스 지도자의 후손은 당국이 가하는 모욕과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일부 가족은 모진 매질과 함께 까르따헤나로 이송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프리카에 위치한 교도소에 감금되었다. 또한 체포된 혁명가담자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파나마 아열대 밀림지역에 버려졌다. 생존한 사람들은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외곽지역으로 흩어졌다.<sup>18)</sup> 갈란의 죽음은 식민 지배세력에 대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공동체의 분노를 심화시켰다.

흑인들의 자유를 향한 노력은 독립전쟁 중 절정에 달했다. 1810년 6월 14일 대부분의 흑인들이 거주하던 까르따헤나의 헷세마니(Getsemani) 지역민은 몬테스(Francisco Montes)식민정부를 붕괴하고 수공업자 조합을 이끌었던 몰라또 소리아(Blas de Soria)대령을 통치자로 추대했다. 헷세마니 지역은 식민지 기간 동안 시마론 비오호의 지휘아래 노예해방운동의 중심지로 부각된 곳이다. 이 지역은 콜롬비아의 공식역사에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공동체가 시민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만 했던 고단한 지난 여정이 살아있는 곳이다. 아직도 이 지역은 역사,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지닌 흑인노예들의 땅으로 기억되고 있다. 가장 숙련된 흑인 수공업자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1811년 11월 11일 무장한 시민들은 까르따헤나 식민의회에 절대적 독립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 사마노(Mori Ilo Juan Sámano)지휘아래 추진된 스페인 재정복전에서 헷세마니 지역민은 도시방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sup>19)</sup>

17) Academia Nacional de la Historia, *Los Comuneros de Mérida*, (Edición Conmemorativo del Bicenario del Movimiento Comuneros, no. 152, 1981), 341.

18) Ibid.

19) Alfonso Múnera, *El fracaso de la nación. Región, Clase y Raza en el Caribe*

볼리바르(Simón Bolívar)는 흑인들을 독립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 부분적인 노예제폐지를 약속했다. 1813년 12월 15일 “전쟁 혹은 죽음”으로 불리던 법령을 발표 하여 참전한 흑인노예들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했다.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에게 독립전쟁 참전은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이 방법이었다. 독립군은 흑인 빠디야(José Prudencio Padilla)의 바람 운행방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빠디야를 포함하여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는 전쟁의 승리가 노예해방을 실현해 줄 것으로 확신했다. 한편, 볼리바르는 독립전쟁 수행과정에서 인적, 물질 자원부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아이티의 통치자 삐띠온(Alejandro Petion)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삐띠온은 독립과 함께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조건 하에 볼리바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0)

1811-1814년 콜롬비아 최초의 공화국(Patria Boba) 건설과정에서 백인 끄리요는 법 앞에 평등을 내세워 신분제폐지를 선언했다. 이 선언을 계기로 흑인들은 새로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스페인 재정복전에 참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1819년 7월20일 신분제폐지를 위해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는 스페인 재정복전에 헌신하였고, 이들의 활약은 결국 콜롬비아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7월25일 뻬따노 데 바르가스 전투(Batalla del Pantano de Vargas)를 통해 콜롬비아의 독립은 시작되었고, 8월7일 보야까(Batalla de Boyacá)전투의 승리로 누에바 그라나나의 독립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8월19일 볼리바르는 콜롬비아 공화국(La República de Colombia)을 선포했다.

새로운 공화국 건설과정에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삐레스(Tomás Pérez)는 시마론 부대를 지휘하며 엘 아뜨라또(el Atrato)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1816년 보고타에서 처형된 부츠(Miguel Buch)와 몬따발로(Miguel Montalvo) 그리고 레몰리노 데 무리(Remolino de Murri)를 방어했던 전사들은 모두 역사 속에 침묵되어온 흑인

*Colombiano (1717-1821)*, (Bogotá: El Áncora Editores: 1988).

20) Ortiz, Sergio Elías(1964), *Colección de Documentos para la Historia de Colombia (Epoca de la Independencia)*, (Biblioteca de Historia Nacional, vol. CIV 1964).

독립영웅들이었다. 또한 태평양의 쿠피카(Cupicaa)로부터 대서양의 엘 아뜨라또까지 ‘안데스의 장미’(La Rosa de los Andes)로 불리던 전투함을 어깨로 운송했던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는 콜롬비아의 독립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의 주역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1)

독립전쟁 이후 참전한 흑인들은 자유와 독립의 건국이념이 진정한 노예해방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1772년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프랑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까르파헤나 시마론과 몰라또를 중심으로 식민노예제폐지를 위한 집중적인 저항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812년 까르파헤나 식민정부는 흑인노예무역 금지법을 마련했고, 1814 안띠오끼아 주 통치자 꼬랄(Juan del Corral)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탄생한 노예자손들의 자유를 인정한 법을 발표했다. 1821년 볼리바르 역시 독립전쟁 참전을 조건으로 흑인노예들의 해방을 보장했다.

그러나 독립이후 볼리바르는 인종적 반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예제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볼리바르의 대변인으로서 공화국의 부통령이었던 나리뇨(Antonio Nariño)는 꾸꾸따의회(el Congreso de Cúcuta)를 통해 노예제폐지에 대한 정부의 수정된 입장을 발표했다. 독립전쟁 참전을 조건으로 흑인노예의 절대적 자유를 약속했던 볼리바르는 “태아 자유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마련하여 1821년 이후 탄생한 흑인노예 자손들에게만 자유가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해방된 노예들은 여전히 일을 제공하는 주인의 보호를 받고 복종해야한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백인 끄리요는 노예해방이 국가의 생존과 사회적 단합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흑인들의 원한으로 인해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동시에 통제되지 않은 흑인의 자유는 백인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므로 노예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은 백인의 감독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국의 이념으로서 자유는 백인재산의 안정과 보호를 의미했다. 그리고 신분제폐지를 통한 평등한 사회

21) Maguemati Wabgou al, et, *Movimientos Socilaes Afrocolombiano Negro, Raizal y Palenquero*,(Bogotá: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2012), pp.61-66.

는 여성과 흑인의 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독립전쟁에 참전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는 공약을 저버린 볼리바르와 백인 크리오요의 이념과 실천의 불일치를 비판하면서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볼리바르는 독립전쟁의 동원수단으로 노예제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전쟁 승리 이후 크리오요 입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공약이 유효하지 않았을 때, 그는 다시 식민노예제로 복귀했다. 까우까, 안띠오기아 그리고 초코 지역으로부터 5,000명의 노예들이 독립군으로 구성되었다. 도주하는 노예는 체포되어 암살되거나 다시 노예로 돌아갔다. 볼리바르는 1825년 아이티에서 개최된 근린의회(Congreso Anfictiónico)에 불참하고, 아이티와의 외교단절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콜롬비아와 가이아나의 독립전쟁에서 공을 세운 흑인 고메스(Manuel Carlos Piar Gómez)를 처형했다. 또한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부상한 트라팔가르(Trafalgar)도 볼리바르 암살 음모자로 누명을 씌워 제거했다. 마라카이보(Maracaibo) 전투의 주역 빠디야 같은 흑인영웅들은 1828년 볼리바르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2)

독립전쟁 참전 이후 흑인들은 지역별로 조직과 제도 및 기구를 구축하여 흑인공동체를 견고히 하는 활동에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은 자발적인 조직 및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공적으로 주장하고 사회의 인종 억압적 가치와 제도 등에 저항하는 흑인 저항대중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노예체제에 저항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는 단순히 백인 건국자들의 이념을 채택하여 그에 동화되거나 전유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사상에 입각한 건국이념과는 상반되는 노예제와 인종적 편견에 대한 크리오요들의 묵인을 비판하면서 흑인저항담론을 구축해 나아갔다. 그리고 노예제폐지에 대한 볼리바르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식민체제를 통해 인종주의가 이미 유산이 되어버린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노예제 반대사상과 이념의 저변에는 흑인급진주의가 깔려있다. 이들은 노예제종식뿐 아니라 흑인의 시민권 혹은 아이티 흑인공화국의 발전을 예

22) Mauricio Chavez Bustos, "Esclavos y Negros en la Independencia", *Revista Credencial Historia*, Edición 247,(Bogotá:2012)

<http://www.banrepcultural.org/blaavirtual/revistas/credencial/julio2010/esclavos.htm>

찬했다. 아이티 혁명은 흑인의 정치적 상상력과 이념적 영감을 제공했다. 흑인 노예 반대자들은 노예제 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아이티주민의 독립정신을 찬양했고 자신들의 투쟁에서 혁명을 재구성하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 IV. 결론

콜롬비아의 독립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은 식민노예제 저항한 시마론과 18세기 정치, 사회 변혁을 추구한 꼬무네로스 혁명을 통해 실현되었다. 17세기 아시엔다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시마론은 식민체제 하에 공동체 빨갱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치,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인종편견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활동을 전개했다. 까르파헤나를 중심으로 누에바 그라나다 부황령의 시마론은 아프리카의 전통과 이산적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사회조직과 문화를 재창조하여 노예제폐지를 위한 조직적인 저항을 실천했다. 시마론과 빨갱계는 식민체제에 대한 급진주의 저항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마론 정신을 계승하여 1781년 구체제의 사회와 정치 그리고 경제변혁을 추진한 꼬무네로스 혁명이 발생했다. 혁명은 위로부터 배신을 경험한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었다. 혁명을 통해 체제전복위기를 경험한 왕실은 식민경제 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정했으며, 꼬무네로스는 콜롬비아 독립의 역사적 전통이 되었다.

볼리바르의 노예해방 공약은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독립전쟁 참전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독립이후 백인 끄리오요는 흑인을 국가의 생존과 사회적 단합에 위협 대상으로 간주하고 노예해방 이후에도 흑인은 백인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부상한 흑인지도자를 처형하여 독립과정에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역할과 공헌을 은폐했다.

누에바 그라나다의 독립은 시마론과 꼬무네로스 혁명의 역사적 토대 없이는 시작 될 수 없었다. 자유흑인의 수가 급증한 18세기 말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는 정치논쟁에 참여하여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선언서의 건국이념에 맞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인종적 정의와 공적담론

에 참여하는 등 국가건설의 일익을 담당했다. 콜롬비아의 독립과 국가건설 과정에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는 큰 자산이 되었다. 그동안 백인중심의 역사 서술전개 속에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공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독립과정에서 이베로-아프로-아메리카 공동체의 역할은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차경미(2008). 「카리브해 팔렝게데 산바실리오(Palénque de San Basilio) 흑인공동체: 저항으로서의 역사, 기억으로서의 문화」. 『라틴아메리카연구』. 21권 2호. 한국라틴 아메리카학회.
- Academia Colombiana de Historia(1981). “El Bicentenario de las Capitulaciones”. *Boletín de Historia y Antiquedad* 68. no 733. Bogotá.
- \_\_\_\_\_ (1981). *Los Comuneros de Mérida*. Edición Conmemorativo del Bicenario del Movimiento Comuneros. No. 152. Bogotá.
- Acosta Cárdenas, Pablo(1948). *El Movimiento Comunal, Tomo. II*. Edición Conmemorativa del Sesquicentenario de la Independencia Nacional. MCMLX. Bogotá.
- ACIA(1994). *Boletín de la Asociación Campesina Integral de Atrato No.25*. Bogotá: Alfonso Múnera(1988). *El fracaso de la nación. Región, clase y raza en el Caribe Colombiano(1717-1821)*. El Áncora Editores. Bogotá.Colombia.
- Aguilera Peña, Mario(1985). *Los Comuneros Guerra Social Y Lucha Anticolonial*.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Bogotá.
- Arciniegas, Germán(1980). Los comuneros. Editorial Pluma, Bogotá. Bushnell, David(1979). “The People and the King. The Comunero Rebellion in Colombia, 1781 by John Leddy Phel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84, no.2.

- Garcia, Antonio(1981). *Los Comuneros En la Pre-Revolucion De Independencia. Ensayos Históicos.* Plaza y Janes. Bogotá.
- Lynch, John(1980). "The People and the King. The Comunero Rebellion in Colombia, 1781 by John Leddy Phel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12, no.1.
- McFarlane Anthony(1986). "Los Comuneros: Guerra Social y Lucha Anticolonial. by Mario Aguilera Peña."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66, no. 4. Bogotá.
- \_\_\_\_\_ (1997). *Colombia Antes De La Independencia. Economía, Sociedad y Política Bajo El Dominio Borbó.* Banco de la República. Bogotá.
- Mauricio Chavez Bustos(2012). "Esclavos y Negros en la Independencia", *Revista Credencial Historia*, Edición 247. Bogotá.
- Memoria y Sociedad(2011). No.30. Bogotá
- Ortiz, Sergio Elías(1984). *Colección de Documentos para la Historia de Colombia (época de la Independencia).* Biblioteca de Historia Nacional. vol. CIV, Bogotá.
- Phelan, John Leddy(1981). *El Pueblo y el Rey: la Revolución Comunera en Colombia 1781.* Carlos Valencia editor. Bogotá.
- Silva, Vincente Pérez(2009). *Revolución de los Comuneros: Revelaciones Documentales y Otras Incidencias,* Revista de Credencial Historia. edición 240. Bogotá.
- Wabgou Maguemati al, et(2012). *Movimientos Socilaes Afrocolombiano Negro, aizal y Palenquero.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Bogotá.
-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
- [http://html.rincondelvago.com/historia-de-colombia\\_1.html](http://html.rincondelvago.com/historia-de-colombia_1.html)
- <http://www.banrepultural.org/blaavirtual/modosycostumbres/crucahis/crucahis106.htm>
- <http://www.banrepultural.org/blaavirtual/revistas/credencial/julio2010/esclavos.htm>

❖ ABSTRACT

Independence of Latin America  
and the Role of Afro-Ibero America:  
Mainly with Cimarron's Resistance and Comuneros Revolution

Kyung Mi Cha

Meantime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keep silent about the role of Afro-Ibero America Diaspora which contributed to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d the realization of country foundation ideology in the official history of Latin America. In some countries, although the collective resistance of Afro-Ibero America Diaspora, which intended to establish a liberal and equal society resisting against slavery and colonization system, was the found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untry, their contribution has been difficult to leave an official trace in Caucasian criollo-centered history system.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Hcienda in 17th Century, black slaves' collective resistance was developed mainly with el Virreinato de la Nueva Granada, the center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Brazil and South America. The black people who escaped resisting against slavery formed communities and developed organized activities through various politics and social activities. However, such communities were mostly dispersed or destroyed by the colonial power, and the collective resistance of Afro-Ibero America Diaspora lost life.

On the other side, in case of Colombia, a community of escaped black slaves which was formed in the early 17th Century is solely remaining in Latin America, moreover, Afro-Ibero America Diaspora's struggle for liberty and equality became the foundation for Comuneros revolution and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late 18th Century. Comuneros revolution which occurred in 1781 awoke self-awareness of liberty and equality, and became an ideological base for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revolutionary republicanism and philosophy of enlightenment. It is considered that South America's independence movement lead by Simón Bolívar was a history that could not have started without historical

base of Afro-Ibero America Diaspora's resistance against coloniz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role and achievement of Afro-Ibero America Diaspora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of Latin America mainly with Colombia, which is the center of Independence movement of South America.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intends to reevaluate historical contribution of Afro-Ibero America which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meanwhile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country.

---

**Key Words**

식민체제, 시마론의 저항, 코무네로스 혁명, 독립전쟁, 역사적 공헌

Colonization system, Cimarron's resistance, Comuneros revolution, War of independence, Historical contribution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